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2, pp.189-194, May 31,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189
JCCT 2019-5-23

중·장년 노후생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Age Preparation for Middle and Old Aged

이국권*, 김재호**

Kuk-Gwen Lee*, Jae Ho Kim**

요 약 본 연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연구이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35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39부를 제외하고 총 311부를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특색과 노인이 될 계층의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 도출, 둘째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사회적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다.

주요어 : 중장년, 노후생활인식, 노후준비

Abstract In this research, it is the research which carried out the fact-finding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targeting middle and middle age. After requesting a questionnaire survey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t was carried out by the method of collection. A total of 350 copies were distributed, and there were a lot of questions that were poor in response or lacking. Except for the 39 copies, a total of 311 copies of SPSS 22.0 were tried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Targeting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e grasped the difference i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life of old-aged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ifference of life in old ag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iddle and middle age, second middle and middle age, socio-demographic, economic, life in old age, living in physical age, or social old age It is the provision of basic materials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by grasping the difference of life.

Key words : Middle-aged, Perception of old age, retirement preparatio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산업화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며, 경제의 발전은 국민소득 증가와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왔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며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저성장, 경기침체,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도 함께 더해져 인구고령화를 부추기고 있다.[1] 급속한 인구감

*준회원, 청운대학교 사회적기업학과 (주저자)
**준회원, 청운대학교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2월 11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9일
Received: February 11, 2019 / Revised: March 07, 2019
Accepted: April 09, 2019
*Corresponding Author: kim2144@daum.net

소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생활에 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은퇴준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2]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낮아지고,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다. [3] 또한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는데[4] 이는 정서적 행복의 필요성과 건강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건강관리 행동은 정서적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5]

중·장년은 미래 노인층으로 노후에 나타날 다양한 변화, 특히 노후를 준비해야하며,[6] 현재 50, 60대는 1980, 90년대 고도 성장기를 이끌며 한국을 선진국 문턱에 진입시켰지만 정작본인의 노후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의 실정을 볼 때 중장년층은 대부분의 수입이 가족생계나 자녀양육, 부모부양 등에 지출이 되어왔고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회복기가 짧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가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미약한 실정이다.[7]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특히 노인의 경제적 빈곤, 질병과 건강,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은퇴 후 역할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 여가생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이다.[8]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년기 소득보장 정책 등 노후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경제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미래예측과 노년기 준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예측하기 매우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9]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에 겪게 될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의 특성 및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변화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10] 이렇듯 노후에 관한 노년기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관련해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밖에 노후준비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증명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인 특색과 노인이 될 계층의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이들을 위한 문제 해결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특색과 노인이 될 계층의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대처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둘째,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사회적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연구로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35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39부를 제외하고 총 3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노후생활인식 측정도구는 유인순(2012)의 연구도구와.[11] 김남순(2009)[12]이 사용한 설문을 수정보완 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4문항, 신체적 노후준비 4문항, 사회적 노후준비 3문항으로 최종 11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었다. 노후생활에 대한 생각은 경제적 노후생활, 신체적 노후생활, 사회적 노후생활 3개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분석에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687, 748, 822이었다

표 1. 노후생활 인지 척도
Table 1. old age cognitive scale

요인	내 용	신뢰도
경제적 노후생활	1 .퇴직 후의 일거리가 필요할 것 같다. 2. 노후에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3. 노후를 위해 직장일 이외, 다른 부업이 필요할 것 같다. 4.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동산 투자가 도움이 될 것 같다.	.813
신체적 노후생활	5. 건전한 성생활도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 6. 건전한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이 필요할 것이다. 7. 건강한 신체를 가꾸기 위해 체력단련이 필요할 것이다. 8. 건강을 위해 과음, 과식 등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사회적 노후생활	9. 노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친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0. 노후에는 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매우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 노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자료 분석

SPSS 22.0을 시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장년 중 남자는 전체의 56.6% 여자는 43.4%, 50~54세 43.4%, 49세 이하 26.7%, 55~59세 22.8%, 60세 이상 7.1%순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2.10세이었다. 학력은 전문대학 이상 62.7%, 고졸 32.5%, 초·중졸 4.8%였다. 월평균소득의 200~499만원 49.5%, 500만원 이상 16.1%, 200만원 이하 18.3%였으며, 월소득 평균은 370.91만원, 부채금액은 없음 71.1%, 5,000만원 이하 12.9%, 5000만 원 이상 16.1%로 평균부채금액은 1992.26만원이었다. 자녀수는 2명 63.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3명 이상 27.3%, 1명 9%로 나타났다.

표 2.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2. Middle-ag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백분율(%)	평균(SD)
성별	남자	176	56.6	-
	여자	135	43.4	
연령	49세 이하	83	26.7	52.10 (4.37)
	50~54세	135	43.4	
	55~59세	71	22.8	
	60세 이상	22	7.1	
학력	초·중졸	15	4.8	-
	고졸	101	32.5	
	전문대학 이상	195	62.7	
종교	기독교	107	34.4	-
	불교	42	13.5	
	무교	162	52.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7	18.3	370.91 (212.56)
	200~499만원	154	49.5	
	500만원 이상	100	32.2	
부채 금액	없음	211	71.1	1992.26 (5116.83)
	5,000만원 이하	40	12.9	
	5,000만원 이상	50	16.1	
자녀수	1명	28	9.0	-
	2명	198	63.7	
	3명 이상	85	27.3	

2. 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장년 노후생활인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85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노후생활 인지 평균
Table 3. Old age average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후생활인지	311	2.73	4.91	3.85	.43

중·장년 노후생활인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노후생활 4.16, 사회적 노후생활 3.96, 경제적 노후생활 3.50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중·장년 노후생활인지 하위요인
Table 4. Sub-factors of old-age living in old age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311	1.50	5.00	3.50	.60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311	2.67	5.00	4.16	.55
사회적 노후생활인지	311	2.00	5.00	3.96	.50

3.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사회적 노후생활인지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 차이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 차이를 살펴보면 <표 5>과 같이 학력,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에 따른 노후생활인지는 5점 만점에 전문대학 이상 3.8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3.80, 초·중졸 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전문대학 이상이 초·중졸보다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금액은 5,000만 원 이상 3.89점, 없음 3.87점, 5,000만 원 이하 3.67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5,000만 원 이상·없음이 5,000만 원 이하의 부채금액을 가진 중·장년보다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대학 이상, 5,000만 원 이상·없음이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 차이
Table 5. Elderly life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duncan
성별	남자	176	3.89	.42	1.675	-
	여자	135	3.80	.43		
연령	49세이하	83	3.85	.43	.168	n·s
	50~54세	135	3.86	.47		
	55~59세	71	3.82	.36		
	60세 이상	22	3.84	.37		
학력	초·중졸	15	3.66	.44	3.018*	a
	고졸	101	3.80	.40		ab
	전문대학이상	195	3.89	.43		b
종교	기독교	107	3.88	.40	.429	n·s
	불교	42	3.81	.46		
	무교	162	3.84	.44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57	3.83	.43	2.751	n·s
	200~499만원	154	3.80	.42		
	500만원이상	100	3.93	.43		
부채금액	없음	211	3.87	.43	4.039*	b
	5,000만원이하	40	3.67	.42		a
	5,000만원이상	50	3.89	.38		b
자녀수	1명	28	3.73	.39	2.379	n·s
	2명	198	3.89	.44		
	3명 이상	85	3.80	.41		

*p<.05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차이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생활인지에 대한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Economic Elderly Life Perceived by Middle-aged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duncan
성별	남자	176	3.54	.60	1.158	-
	여자	135	3.46	.59		
연령	49세이하	83	3.50	.58	.172	n·s
	50~54세	135	3.50	.65		
	55~59세	71	3.48	.58		
	60세 이상	22	3.59	.45		
학력	초·중졸	15	3.45	.66	.328	n·s
	고졸	101	3.54	.52		
	전문대학이상	195	3.49	.64		
종교	기독교	107	3.55	.55	.787	n·s
	불교	42	3.42	.67		
	무교	162	3.49	.61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57	3.59	.52	.723	n·s
	200~499만원	154	3.48	.58		
	500만원이상	100	3.49	.66		
부채금액	없음	211	3.54	.58	2.015	n·s
	5,000만원이하	40	3.35	.55		
	5,000만원이상	50	3.44	.69		
자녀수	1명	28	3.41	.54	.841	n·s
	2명	198	3.53	.59		
	3명 이상	85	3.45	.64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차이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차이를 살펴보면 <표 7>와 같이 학력, 월평균 소득,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에 따른 신체적 노후생활인지는 5점 만점에 전문대학 이상 4.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3.90, 초·중졸 3.65점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전문대학 이상·고졸이 초·중졸보다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500만 원 이상 4.11점, 200만 원 이하 3.90점, 200~499만 원 3.89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500만 원 이상이 200만 원 이하·200~499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가진 중·장년보다 신체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았다. 부채금액은 5,000만 원 이상 4.05점, 없음 3.98점, 5,000만 원 이하 3.74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5,000만

원 이상·없음이 5,000만 원 이하의 부채금액을 가진 중·장년보다 신체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월평균 급여,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대학 이상, 500만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없음이 신체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생활인지에 대한 차이
Table 7. Difference of physical aging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duncan
성별	남자	176	4.01	.51	1.827	-
	여자	135	3.90	.49		
연령	49세이하	83	3.95	.54	.663	n·s
	50~54세	135	4.00	.53		
	55~59세	71	3.90	.44		
	60세 이상	22	3.95	.40		
학력	초·중졸	15	3.65	.40	4.963*	a
	고졸	101	3.90	.50		b
	전문대학이상	195	4.02	.50		b
종교	기독교	107	3.96	.47	.003	n·s
	불교	42	3.96	.55		
	무교	162	3.96	.52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57	3.90	.53	6.410**	a
	200~499만원	154	3.89	.50		a
	500만원이상	100	4.11	.47		b
부채금액	없음	211	3.98	.51	4.801*	a
	5,000만원이하	40	3.74	.53		b
	5,000만원이상	50	4.05	.42		a
자녀수	1명	28	3.88	.57	.559	n·s
	2명	198	3.98	.50		
	3명 이상	85	3.94	.49		

*p<.05, **p<.01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노후생활인지 차이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노후생활인지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학력, 월평균 소득, 자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에 따른 사회적 노후생활인지는 5점 만점에 전문대학 이상 4.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4.20, 초·중졸 3.95점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전문대학 이상·고졸이 초·중졸보다 사회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500만 원 이상 4.28점, 200~499만원 4.13점, 200만원 이하 4.04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500만 원 이상이 200만 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을 가진 중·장년보다 사회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았다. 자녀수는 2명 4.23점, 3명이상 4.07, 1명 3.96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2명이 1명의 자녀수를 가진 중·장년보다 사회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월평균 급여, 자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대학 이상, 500만원 이상, 2명의 자녀수를 가진 중·장년 사회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노후생활인지에 대한 차이
Table 8. Difference in social aging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duncan
성별	남자	176	4.19	.55	.865	-
	여자	135	4.13	.55		
연령	49세이하	83	4.20	.54	.574	n·s
	50~54세	135	4.16	.58		
	55~59세	71	4.17	.50		
	60세 이상	22	4.03	.56		
학력	초·중졸	15	3.95	.53	7.637***	a
	고졸	101	4.20	.55		ab
	전문대학이상	195	4.26	.53		b
종교	기독교	107	4.20	.55	.394	n·s
	불교	42	4.12	.49		
	무교	162	4.15	.57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57	4.04	.58	3.942*	a
	200~499만원	154	4.13	.57		ab
	500만원이상	100	4.28	.48		b
부채금액	없음	211	4.17	.56	2.604	n·s
	5,000만원이하	40	4.00	.57		
	5,000만원이상	50	4.27	.46		
자녀수	1명	28	3.96	.56	4.840*	a
	2명	198	4.23	.55		b
	3명 이상	85	4.07	.53		ab

*p<.05, ***p<.001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장년 노후생활인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85

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생활인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신체적 노후생활 4.16, 사회적 노후생활 3.96, 경제적 노후생활 3.50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대학 이상, 5,000만 원 이상·없음이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월평균 급여,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대학 이상,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없음이 신체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사회적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월평균 급여, 자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전문대학 이상, 500만 원 이상, 2명의 자녀수를 가진 중·장년 사회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후생활인지에 대해서 건강, 가족, 친구와 관계형성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장년을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참여 기반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학력, 월평균 소득, 부채금액, 자녀수에 따라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식향상지원 체계와 부채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사회참여를 이끌어 노후준비를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노후생활준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원인분석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제안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Jeong-Hyun kim, “The Effect of Elderly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Self-Efficacy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ho visited a Senior Center”, Major in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8.

[2] Hwa-Jung Kho, “A Study on the Typology of Korean Retirees”, Dept. of Consum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3.

[3] Joong-Don Kwon, Welfare for the aged, Hakgiosa,2004.

[4] Ok-Mi Baik,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4, pp.301-308, 2018.

[5] Jung-Ae Kim, Effects of Recognition of the Pregnancy necessity on Emotional Happ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6 No.3 12-21. 2018.

[6] Choo-yong Cho, Mi-yong Song, Keun-Sun Lee,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0 No.43, 135-156, 2009.

[7] Sang Yeoul Yoon, “A Study on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on Successful Aging”, Ka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Silver Industry Department, 2013.

[8] Jung-Hee Park,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Middle-Aged Korean Women for Better Senior Lif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07.

[9] Ye-Sim Ju, “A Study on old Preparation Conscious of Middle-aged and Retirement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Graduate School of Seoul Hanyoung University, 2014.

[10]Young-Nam Kim, “The effects of self-control, self-efficacy and recognition of quality of life on the preparation of middle age group in Jeju for their old age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te School of Admin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2015.

[11]In-soon You, “Effects of the Personality Traits, society Activity · Leisure Activity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Perception for the Old Age”, Department of Venture Business,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Seoul, Korea, 2012.

[12]Nam-Soon Kim, “Studies in the middle-aged workers′ recognition of their retirement plan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won University, 2009.